

DDC 21과 KDC 4의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DC 21 and KDC 4

정 연 경(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1. 서론 | 2. 5 주제의 표현 |
| 1. 1 연구의 목적 | 2. 5. 1 전개 능력 |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5. 2 분류번호의 부재 |
| 2. KDC 4와 DDC 21의 구조 | 2. 6 상관색인 |
| 2. 1 형태서지적 비교 | 2. 7 편집 체제 |
| 2. 2 분류표의 배열 | 2. 7. 1 시각적 효과 |
| 2. 2. 1 주류의 구분 및 배열 | 2. 7. 2 한자와 영어 부기 |
| 2. 2. 2 한국 및 동양 우선의 배열 | 2. 7. 3 표기 및 오자 |
| 2. 3 보조표와 개요표 | 3. KDC 4와 DDC 21의 개정 과정 |
| 2. 3. 1 보조표의 구성 | 3. 1 개정 주기 |
| 2. 3. 2 보조표의 항목 | 3. 2 개정 방침 |
| 2. 3. 2 개요표 | 3. 3 편찬위원회와 개정 관련 소식지 |
| 2. 4 주기 | 4.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십진분류표와 듀이십진분류표의 최근 판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한국십진분류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분류표의 형태서지적 측면, 배열, 보조표와 개요표, 주기, 주제의 표현, 상관색인, 편집 체제, 개정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표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21th edition of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the 4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everal categories are used for analyzing those classification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quality of two schedules with some examples and to analyze important categories of them an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m and also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in 21th century.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2000년 3월 1일

1.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996년에 한국십진분류표(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제 4판이 나온 지도 4년이 넘어간다. 1990년에 KDC의 개정작업이 착수되고 6년이 지나서 제 4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급격한 학문의 변화와 함께 KDC의 개정작업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KDC는 한국 유일의 표준분류표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류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듀이십진분류표(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와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도서관의 장서를 동서는 KDC, 양서는 DDC를 혼용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DDC를 자관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124년의 역사를 갖고 현재 제 21판까지 나온 DDC를 이제 겨우 4판이 나오고 36년밖에 안된 KDC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보다 나은 한국의 표준분류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진분류표의 대표격인 DDC와의 비교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KDC와 DDC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특정 주제 분야에 관해 다른 분류표와 함께 서로 비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분류표에 관한 제언 및 개정이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료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위한 주

제의 배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류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구조적, 형태적 체제 개선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DDC 제 21판(DDC 21)과 KDC 제 4판(KDC 4)을 체제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KDC 4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KDC 4가 갖는 문제점을 DDC 21과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파악한 후, 차후 KDC 4 개정작업에 반영해야할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KDC 4와 DDC 21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 및 체제를 본표, 보조표, 상관색인 및 기타 부분으로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DC 4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KDC 4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DC 4와 DDC 21을 실제로 비교 조사하였으나 분류표가 다루고 있는 자료 분류를 위한 주제적인 측면보다는 분류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구조 및 체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2. KDC 4와 DDC 21의 구조

2. 1 형태서지적 비교

KDC 4는 총 2권, DDC 21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분류표를 형태서지적으로 간단히 비교하면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나있듯이 DDC 21은 KDC 4보다 양적으로 세배 가까이 양이 많다. 특히 보조표

〈표 1〉 KDC 4와 DDC 21의 형태서지적 비교

| KDC 4 | DDC 21 |
|-----------------------------------------------------------------------------------------------|----------------------------------------------------------------------------------------------------------------------------------------------------------------------------------------------------------------|
| 총 2권, 1,483 페이지 | 총 4권, 4,035 페이지 |
| 1권---서문 및 분류위원회 보고 시설(13 p.) 조기표(15 p.) 주류표 강목표 요목표 본표(830 p.) 2권---상관색인 | 1권---서문 21판의 새로운 특징* 서론(25 p.) 용어집* 해설과 용어집에 대한 색인* 편찬년표* 보조표(515 p.) 재배치와 축소* 비교표* 등가표* 재사용번호* 개요표 2권, 3권---본표(2205 p.) 4권---상관색인 매뉴얼* 미의회도서관 십진분류분과의 방침과 관례* |

* KDC 4에 없는 부분임.

의 경우, KDC 4가 15페이지에 불과한데 비해 DDC는 515페이지에 달하며 본표도 KDC 4가 830페이지인데 비해 DDC는 2205페이지로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이것으로 분류의 세분화와 전문성을 말할 수는 없으나 보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DDC 21과 KDC 4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서문, 서론, 보조표, 개요표, 본표, 상관색인, 책임위원회의 보고이고 DDC 21에만 있는 것이 개정판의 새로운 특징, 용어집, 해설과 용어집에 대한 색인, 편찬년표, 재배치와 축소 사항, 구소련과 행정학, 교육학, 생명과학에 대한 비교표, 등가표, 재사용 번호, 매뉴얼, 전자 버전에 관한 소개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DDC 21은 판이 바뀌면서 새롭게

바뀐 사항들, 편찬년표, 재배치와 축소사항, 비교표 및 등가표, 재사용 번호 등을 포함함으로써 개정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전 판을 사용해 온 분류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DDC 21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KDC 4는 이전 판들의 서문이나 분류분과위원회의 보고만을 서문에 올려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전 판과의 연계성이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분류표가 개정되어도 일관성 있는 분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판과 신판의 분류표상의 차이를 분류자가 숙지할 수 있는 리스트가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DDC는 18판부터 DDC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문용어를 설명해 주는 용어집을 수

록하면서 DDC의 실제 응용 및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에 비해 KDC 4는 전문 용어의 해설 부재로 인해 사용하는 분류자에 따라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KDC를 사용하는 분류담당자는 분류 전문 용어에 익숙한 사서라고 할 수 있으나 KDC를 처음 배우는 전공생이나 신입 사서의 입장에서 보다 확고한 분류의 개념 정립과 혼란 방지를 고려하여 명확한 전문용어집의 정의나 해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 용어에 대한 색인도 마련되어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KDC 4는 13페이지에 불과하는 비교적 짧은 서설을 갖고 있으므로 서설에 대한 색인이 없다. 물론 짧은 사용설명서이기 때문에 색인까지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분류표의 양이 방대해지고 DDC 21과 같이 긴 서설을 갖게 된다면 분류표 이용자들을 위한 편리한 색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KDC 4는 매뉴얼이 없는데 DDC 21의 경우, 매뉴얼이 제 4권의 상관색인 뒤에 300페이지 넘게 위치해 있다. 이 매뉴얼은 난해한 분야의 분류 작업에 대한 지침과 새롭게 바뀐 본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표와 보조표에서 주기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거나 본표에 포함된 정보가 혼란을 주거나 난처할 때를 대비하여 분류번호들의 선택에 대한 도움, 복잡한 본표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지시, 주요 개정에 대한 긴 설명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보조표와 본표의 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있는 이 매뉴얼은 매우 상세한 설명으로 분류자들을 돕고 있으며 제 3보조표 문학 형식 구분표의 경우, 복잡한 부분에서는

흐름도까지 제공하여 분류 번호의 합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해결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 매뉴얼과 함께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를 발행하여 보다 자세하게 분류표의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물론 KDC 4의 발행 이후, 1997년에 『한국십진분류법 해설』이라는 자료를 별도로 발간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KDC 4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자료는 각 분류 번호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포함 주기 및 당소 분류 주기, 타소 분류 주기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을 뿐, 실제로 KDC 4를 사용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분류 시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2. 2 분류표의 배열

2. 2. 1 주류의 구분 및 배열

KDC 4의 주류 구분은 DDC를 기초로 하였지만 그 배열 순서는 DDC에서의 어학과 문학의 분리를 수정하여 전개하였다. 그래서 DDC의 400대에 설치되어 있는 어학을 문학과 가깝게 배열하기 위해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을 앞당겼다. 그래서 KDC 4에서는 400대가 순수과학, 500대가 기술과학, 600대가 예술, 700대가 어학으로 DDC 21과 주류의 분류 번호가 다르다. 그러나 DDC가 갖고 있는 300대 사회과학과 900대 역사의 분리는 KDC 4에서도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2. 2 한국 및 동양 우선의 배열

KDC가 처음 나오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중심으로 자료 분류를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DDC가 세계적인 분류표이기는 하나 서양 중심의 분류표로 동양 관계의 항목이 매우 부족하고 한국 자료의 분류 번호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본번호가 긴 상태에 또 다시 번호를 전개하면 지나치게 분류 번호가 길어져 분류 번호의 기본 조건인 간결성, 단순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KDC는 강, 목, 세목의 구분 및 배열에 있어서 한국 관계와 동양관계의 주제에 우위를 두어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첫째, 총류인 000대의 030 백과사전류나 050 연속간행물류, 080 전집에서 DDC 21은 미국 영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슬라브계어, 스칸디나비아어의 순으로 지역별, 언어별 구분을 한 후, 마지막에 나머지를 기타 제언어로 다 함께 묶어주고 있다. 060 기관과 박물관, 070 언론 및 출판의 경우도 언어 배열과 유사하게 지역을 배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KDC 4는 한국어어를 시작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기타 제언어로 번호를 할당하였다. 둘째, 철학 부문에서 DDC 21은 서양 철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KDC 4에서는 동양철학을 중심으로 동양 고유의 경학, 아시아 철학, 한국, 중국, 일본의 철학을 먼저 배정한 후에 서양철학을 배열하였다. 셋째, 종교류에서 KDC 4는 DDC의 기독교 편중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DDC의 경우, 220대부터 280대까지 기독교에만 치우쳐 전개하고 290에 기타 제 종교를 주고 있는데, KDC 4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종교를 수용할 수 있도록 220 대에 불교, 240대에 도교, 250대에 천도교, 270대에 바라문교 및 인도교, 280대에 회교

를 주어 동양 종교에 더 많이 할애하였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 비교적 균등한 비중을 두어 동양 종교를 많이 다루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잘 맞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언어, 문학, 역사에서도 동양 우위로 편성하여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맨 앞에 배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과학의 380대 풍속과 민속학, 390대 국방과 군사학, 예술 분야의 630대 공예, 장식미술과 640대의 서예 등은 한국 실정에 맞게 밑에서 綱으로 승격시켜 배정한 항목이다.

2. 3 보조표와 개요표

2. 3. 1 보조표의 구성

DDC는 초판부터 합성의 원리와 사용의 간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형식구분을 도입하였다. DDC 21은 7개의 형식구분, 즉 보조표로 이루어져있고 KDC 4는 8개의 보조표로 구성된다.

두 분류표의 보조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공통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호의 조직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기성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분류자의 기억을 도와주어 분류표와 색인을 자주 참조하지 않아도 되고 분류표의 부피를 줄여주고 유사한 주제의 배열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 주므로 큰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조기성이 자신의 기억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분류 번호의 확인을 덜하게 할 수도 있고 분류 업무를 전담하다 보면 많은 분류 번호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므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회의적 견해를 보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분류표는 조기성을 통해 일관성을 최대한 쉽게 유지할 수

〈표 2〉 KDC 4와 KDC 21의 보조표 내용 비교

| 보조표의 구분 내용 | KDC 4 | DDC 21 |
|--------------|----------------|----------------------------------|
| 표준구분 | 표준구분표 (85 항목) | T1. 표준세구분표 (196 항목) |
| 지역구분 | 지역구분표 (226 항목) | T2. 지역, 시대, 인물구분표 |
| 특정국의 별도 지역구분 | 한국지역구분표 | T2. 지역, 시대, 인물구분표 |
| 특정국의 별도 시대구분 | 한국시대구분표 | 해당 없음 |
| 각 언어구분 | 국어구분표 (8 항목) | T6. 언어구분표 (41 항목) |
| 문학형식구분 | 문학형식구분표 (8 항목) | T3. 개별문학, 특정문학형식 구분표 (181 항목) |
| 언어공통구분 | 언어공통구분표 (8 항목) | T4. 개별 언어 및 어족 세구분표 (372 항목) |
| 인물구분 | 해당 없음 | T7. 인물군 구분표 |
| 인종구분 | 해당 없음 | T5.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표 |
| 종교구분 | 종교공통구분표 | 해당 없음 |

있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 수만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표 2〉는 DDC 21과 KDC 4의 두 보조표의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DDC 21과 KDC 4에서 보조표의 차이는 KDC 4의 경우, 인물 및 인종에 대한 형식구분이 전혀 없는 대신에 DDC 21에는 없는 종교구분과 한국 중심의 지역 및 시대 구분표를 별도로 마련했다. 각 나라에서 개발되는 분류표는 자국 중심의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KDC 4에서 한국의 지역 및 시대 구분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의 각 지역역사인 911.1-.99에서와 같이 지역 구분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한국 지역 구분표를 대신 하였고 한국 시대 구분표는 한국의 시대사인 911.01-.077에서와 같이 구분하도록 지시하여 독립된 각각의 보조표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DDC 21의 경우, 지역구분이 7개의 보조표 중 가장 방대하게 전개되어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에 KDC 4

는 국명의 전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주제 표현의 한계가 크므로 조금은 더 상세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물군에 관한 보조표의 부재로 인해 KDC 4로는 『Santa Claus』라는 자료를 분류한다면, 성탄절이라는 분류번호 밖에 줄 수 없으며 『학습부진아의 심리학적 연구』라는 주제를 적합하게 표현할 분류번호가 마땅치 않다. 『Women in the Church of England』의 경우도 영국 성공회로 분류번호를 주고 나면 여성이란 주제를 더 전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 관한 공통보조표는 김자후(1998)가 지적했듯이 직업, 연령, 성별, 계층, 신분, 인종, 민족 등의 구분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 원리를 총망라하는 하나의 공통보조표를 조기성을 살려 추가한다면 자료의 다면적인 측면을 나타내주는 적합한 분류 번호의 부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KDC 4의 독창적인 종교 공통구분은 각 종교에 있는 주제나 의식을 유형별로 구분

하고 조기성을 갖는 기호를 부여하여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킨 구분이다. 이는 각 종교마다 동일한 요목을 제공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각 종교의 증파나 교파에 적용시켜 세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종교 분야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공통 구분표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3. 2 보조표의 항목

보조표는 열거식 분류표가 갖는 단점인 다면적 측면을 가진 주제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므로 보조표가 풍부해질수록 첨가할 수 있는 패시가 많아지고 주어진 정보를 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표준구분, 지역구분, 문학형식구분, 각 언어구분, 언어공통구분의 내용만이 KDC 4와 DDC 21에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조표로 우선 항목 수를 비교해 보았다. 항목 계산 시에는 각 괄호로 표시해서 사용하지 않는 번호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원괄호 내의 임

의규정 번호는 포함시켰다. <표 2>를 보면 DDC 21과 KDC 4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정도로 표준구분은 2배 이상의 항목 차이가 나고 문학형식도 20배, 각 언어 구분은 5배, 언어 공통 부분은 46배가 넘는 항목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KDC에 좀 더 많은 측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표의 항목을 추가해야한다. 이숙주(1999)는 분류번호의 자리가 길어지면서 조기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이나 애매모호한 형식들까지 형식 구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보조표의 적절한 양적 증가와 함께 일관된 체계 및 기준 아래서 조기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KDC 4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보조표의 적용을 들자면 제일 먼저 각 주제의 표준구분의 전개 내용과 각 주제에만 해당되는 고유항목들이 함께 뒤섞여 전개되어 혼란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KDC 4로 『교육학 전집』을 분류하는 경우, 본표를 잘 살

<표 3> KDC 4와 DDC 21의 교육학 분야 비교

| KDC 4 | DDC 21 |
|----------------------|------------------------------------------------------------------------------------------|
| 370 教育學 Education | 370 Education |
| 1 教育哲學 및 理論 | |
| | SUMMARY |
| 7 指導法, 研究 및 教育, 教育資料 | 370.1-9 Standard subdivisions, education for specific objectives, educational psychology |
| | |
| 8 教育論 | .1 Philosophy and theory, education for specific objectives, educational psychology |
| | |
| 9 教育史 | .7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pics |
| | |
| | .8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s |
| | |
| | .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
| | |

펴보지 않으면 표준구분의 -08이 총서, 전집, 선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370.8로 분류번호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370.8은 교육론이란 주제를 위한 번호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370.1이 철학 교육 및 이론이고 370.7이 지도법, 연구 및 교육 자료, 370.9가 교육사로 표준구분의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교육학 전집이 370.8로 전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370.8은 교육론을 위한 분류 번호이므로 교육학 전집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로는 370.08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준구분은 370.01-.09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해주고 표

준구분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해당하는 분류번호 범주로 바꾸거나 <표 3>의 DDC 21과 같이 개요표를 주면 분류자가 분류번호를 주는데 혼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게 된다. 370에서 나타나는 보다 큰 문제는 교육학 자체의 주제와 표준 구분의 주제가 서로 섞여서 번호가 할당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표준구분을 적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주제는 아예 교육학 고유의 주제 영역과는 분리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표 4>와 같다. KDC 4에서 체육학인 692를 보면 692.01,

<표 4> KDC 4와 DDC 21의 체육학 분야 비교

| KDC 4 | DDC 21 |
|-------------------------------------------|----------------------------------------------------------------------------------|
| 692 體育學, 스포츠 Physical training and sports |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
| .01 理論 | SUMMARY |
| .023 規則集 | 796.01-.09 Standard subdivisions and general kinds of sports and games |
| .067 運動場, 體育館, 體育施設 | .1 Miscellaneous games |
| .069 綜合體育大會 | .2 Activities and games requiring equipment |
| .076 트레이닝, 코치, 審判 | |
| .1 體育力學 | .01 Philosophy and theory |
| .3 體育社會學 | |
| .57 體育衛生學 | .04 General kinds of sports and games |
| .8 體育心理學 | |
| .9 體育測程, 體育能力 教育測定 → 370.183 | .06 Organizations, facilities, management |
| | |
| | .07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pics |
| | |
| | .08 History and description of sports and games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s |
| | |
| | .1 Miscellaneous games |
| | |
| | .2 Activities and games requiring equipment |
| | |

692.023 등은 마치 표준구분표를 사용한 듯 하나 692.069나 692.076은 전혀 표준구분표와 관련이 없다. 이런 경우, 『체육학 사전』을 분류한다면 692.03으로 분류번호를 주어야 하는지, 692.003을 주어야 하는지 표준구분표의 범주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아 분류자가 혼란스럽게 된다. 반면에 DDC 21의 경우를 보면 분류표의 개요표에 표준세구분의 적용 범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서 비록 본표에는 796.01, 796.04, 796.06, 796.07, 796.08만이 나와있지만 이외에도 표준세구분표를 사용하여 줄 수 있는 번호가 796.01-.09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DC 4에서는 무엇보다도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주제들과 각 주제에 해당하는 고유 항목들이 섞여있는 부분을 재정리하고 주기나 개요표를 통해 표준구분을 정확히 전개할 수 있는 근거의 설정이 필요하다.

2. 3. 3 개요표

DDC 21은 <표 3>과 <표 4>와 같이 본표와 보조표의 매 주요항목마다 개요표가 있어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각 세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범위, 전모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선 순위를 나열하고 있어서 적용상 혼란스러울 때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표, 본표의 각 주류와 각 보조표와 綱의 주요 기호들 앞의 다단계 개요표, 본표와 보조표 곳곳에 각 세구분들이 가지고 있는 類들을 쉽게 보여주는 단일 단계 개요표가 있다.

이에 비해 KDC 4에는 제 1권에 주류표, 항목표, 요목표가 모두 다 모여 있는 것이 전부

이다. 본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조표도 개요표 없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범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이해가 어려우며 시각적으로 답답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분류표 상의 해당 분류 번호의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항상 본표의 앞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 물론 KDC는 2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뒤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세구분 정도가 상세하게 전개되지 않아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항목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 파악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류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개요표는 앞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추가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본표의 곳곳에 삽입되는 단일 단계 개요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類 앞에 이 단계 개요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 주기

분류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류번호를 매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기는 분류표 상에 설치되어있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나 그 항목에 속하는 범위, 분류항목의 명확성 및 항목간의 관계성, 또는 항목의 세분을 위한 지시나 전개 등에 관해 분류 항목 하에 설명되어 있는 사항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기는 표목만으로 분류하기 힘든 항목 아래에 설명을 해 주고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분류표의 사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DC 21에서 사용되는 주기는 총 16개로 자세하고 다양한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분

류번호 작성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목만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의미, 범위, 순서, 구조, 종속 관계, 그 밖의 문제와 관련된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 번호 아래 예시가 나와있어서 번호를 합성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많은 정의 주기와 범위 주기, 이전 표목 주기, 별명 주기, 당소 분류 주기, 포함 주기, 타소 분류 주기, 사용금지 주기, 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 개정 주기, 미사용 주기, 재배치 주기, 추가 주기, 매뉴얼 주기, 임의규정 주기가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에 많은 배려를 하였다.

이에 비해 KDC의 주기는 다양하지 못하며 주기 사항의 역할이 부족하여 어디까지 세분하여 분류 번호를 주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즉 주기의 설정이 미흡하여 분류자가 분류시 부딪힐 수 있는 모호성에 대해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분류자가 분류한 번호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갖기 어렵다.

KDC 4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는 첫째, 정의주기로 주요 분류 항목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설명을 가하고 또 내포된 개념의 범위를 표시하는 주기이다. 표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의미가 광범위하거나 너무 제한적인 경우나 표목의 의미가 다른 일반 사전과 의미가 다양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용어가 새로운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을 의미한다.”로 쓰여있다. 둘째는 범위 주기로 표목의 특성을 기술하여 표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기호의 의미가 표목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보다 좁거나 광범위한지 여부를 지시해 주는 주기이다. 대부분 “~만을

포함한다.”로 쓰여있다. 셋째는 당소 분류 주기로 어떤 류의 주요 토픽들을 열거해 주고 다학문적이고 포괄적인 저작이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지시해 주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대부분 “~ 등을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쓰여있다. 넷째는 포함주기로 해당 토픽에 관해 쓰여진 저작들은 비교적 적으나 장차 그 문헌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때에 자체의 기호가 부여될 수도 있는 토픽들에 대한 위치를 제공해 주는 주기이다. 대부분 “~, ~, ~등을 포함한다.”라고 쓰여있다. 다섯째는 타소 분류 주기로 상호 관련된 토픽으로 안내해 주거나 또는 동일한 기호법에 의한 계층 구조에 있는 기호들을 구별해 준다. 이 주기는 우선 순위를 나타내거나, 포괄적 기호나 다학문적인 기호로 안내하거나 선행규칙을 무효로 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상위 토픽이나 하위 토픽으로 안내하는데 사용된다. 대부분 “~은 ~에 분류한다.” 또는 “~은 그 주제 하에 분류한다.”라고 쓰여있다. 여섯째는 보라 참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현된 포괄적 기호로부터 그 개념의 구성 요소로 안내해 준다. “→”가 참조를 의미하는 기호이다. 일곱째는 이전 표목 주기와 이전 주기로 새로운 표목이 과거의 표목과는 거의 또는 전혀 유사성이 없을 정도로 수정되었을 경우에만 기재되는 주기이다. “518.6 藥品의 投與法 [前 藥品의 適用部位]”이나 “338.06 赤十字 [前 338.061]”과 같이 이치되거나 삭제된 분류 번호와 항목은 []로 명시한 뒤, 지시주를 이용하여 그 항목이 어느 곳에 분류되어야 할지를 명시하고 이치되어서 새롭게 분류번호를 배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명 옆에 [前]이라는 표시와 함께 분류번호를 명시하여 재배

치 주기와 사용금지 주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여덟째는 기호 합성을 위해 추가 지시를 해 주는 개별적인 추가주기로 “~은 ~과 같이 세분한다.” “~은 ~과 같이 지역 구분한다.”라고 쓰여있고 대부분 그 적용 예를 그 다음에 보여준다.

그러나 동의어나 준동의어를 보여주는 별명 주기와 관련된 주제를 제공하여 다양한 접근과 관계를 설정해 주는 도보라 참조를 KDC 4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이전 판 이후로 변경된 것을 본표에서 알려주는 개정주기도 필요하고 한 장 혹은 여러 장에서 여러 번 발생하는 추가지시를 한번에 지시하는 것이 본표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합성된 모든 번호를 ‘*’나 다른 기호와 함께 표시하고 각각 페이지 밑에 적당한 추가 지시의 위치를 각주로 부여하고 각주는 기호에 의해 표시된 모든 번호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KDC 4에는 자체 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 주기가 없을 수밖에 없으나 특정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나 부분적인 설명, 특정 분류번호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을 안내해 주는 매뉴얼 주기도 매뉴얼 추가와 함께 필요하다. 끝으로 KDC 4에는 포함주기가 매우 빈번하게 있는데 이는 독립된 항목으로 있기에는 문헌적 타당성이 낮아서 포함주의 항목으로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마땅히 배치해야 할 항목을 찾지 못해 묶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KDC 4는 보다 다양한 주기의 활용과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어야만 분류표 사용자들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 적합한 분류번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5 주제의 표현

2. 5. 1 전개 능력

십진식 분류표는 열거식 분류표이므로 주제의 결합방식이 직선적이어서 주제의 다면적 측면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결국 계층관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주제의 개념간의 관계는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학제적인 주제나 기존 주제간의 상관관계의 변화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합주제나 합성주제를 분류번호로 나타내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DDC 21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표와 본표내의 여러 가지 합성 지시에 의한 조합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과 행정학 분야에서는 주제를 전개하는데 패시 기호와 합성을 위한 패시 구조의 도입을 설계의 기본으로 하였다.

이에 비해 KDC 4의 최대 맹점은 전개 능력의 절대 부족에 있다. 분류 항목의 전개가 부족하고 항목 내에 설정된 주기가 매우 빈약하여 자료 속에 내포된 다수의 패시를 기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분류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관점이나 시대 등의 패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서명의 자료에 동일한 분류번호가 배정됨으로써 분류 번호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서가가 체계 없이 비대해져 분류번호가 갖는 효용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DC 4에서 문학은 문학 형식 구분만으로 나누어져 수많은 국내 소설들이 도서기호에 의해 배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다. 문학에 있어서 시대

구분은 시와 소설에 한해서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고, 809.1-8 아래에는 “문학형식에 의한 각국 문학사는 그 문학 하에 구분한다.”고만 지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학형식과 시대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한국문학의 경우, 813 아래 시대에 따라 813.4 고려시대 소설, 813.5 조선시대 소설, 813.6 현대소설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후의 소설은 모두 현대소설로만 분류해서 신소설이 현대소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문학에서 신소설은 현대소설과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므로 단순히 시대 구분만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신소설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DDC 21과 같이 각국 문학 아래 시대의 세분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A Study of Social Themes in the 15th century English Literature』를 분류할 때, KDC 4는 영국문학으로 분류하고 나서는 표준세분의 시대구분으로 전개하고 더 이상 전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DDC 21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문학 아래 시대보조표를 내부 보조표로 두어 각 나라의 시대적 특성을 살리고 주제 구분 요소를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 경우, 김자후(1998)가 제시했듯이, DDC 21의 제 3구분표의 주제 구분요소들로 조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문학전집이나 문학에 관한 역사서나 평론서들을 언어나 문학형식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주제분야에 걸쳐 기본기호, 부가기호, 내부표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의 조합방식이 채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조합식 분류체계의 성격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출현에 대한 분류체계의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연관 주제는 조합을 통해 주제를 세분해 줌으로써 동일 개념이 동일기호로 표현될 수 있게 해 주어 분류표의 조기성을 향상시키고 분류표의 전체 분량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 5. 2 분류번호의 부재

KDC 4에는 북한만을 위한 분류번호나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북한에 관한 일반적인 저작은 한국사와 함께 분류한다. 예를 들어 북한학은 911에 분류하고 북한의 시대사는 한국사의 시대구분인 911.01-911.077 아래에서 연대가 같은 시대에 분류하므로 김일성 사후의 북한은 911.077의 분류번호를 갖게 된다. 북한의 행정구역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변동된 지역은 변경되기 이전의 해당 지역에 분류할 수밖에 없다. 북한학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관한 자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 관한 항목 설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분야인 전자상거래,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인터넷 상점, 인터넷 서점, 인터넷 비즈니스, 홈뱅킹, 홈쇼핑, 경호학, 호텔 경영 등 KDC 4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제에 대한 분류 번호의 설정도 시급하다.

2. 6 상관색인

DDC 21의 상관색인은 색인어로 채택된 주제어에 대하여 분류 번호를 안내하는 외에 그

주제어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다시 한번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그 각각에 분류 번호를 안내하는 색인 방식이다. 상관색인은 주제들의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주제들이 각각 포함되는 학문 분야를 관련지어 놓았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부른다. DDC 21의 상관색인은 특정 주제에 대해 색인어가 나오고 그에 따른 분야와 부분적 특성에 관한 부분이 하위 계층으로 설정됨으로써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제에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하위 계층은 상위계층에 비해 한번 들여 쓰기를 하고 하위계층보다 더 하위 계층은 또 한번 더 들여 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주제어 안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분야는 그 하위분야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상위 계층에 표기된 DDC 번호는 학제적 번호이다. 이러한 색인 방식은 하나의 주제만 검색해도 그 관련 주제들에 대한 분류 번호들을 모두 참고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열거식 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다. DDC 21의 상관색인은 많은 항목들의 수록과 함께 선정된 합성 기호와 국제적인 이용자들을 위한 표제어를 제시해 주는 용어들, 매뉴얼의 주기에 대한 색인 용어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표와 보조표의 표목과 주기 등 분류표 상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본표와 보조표에 의해 표현되는 개념들에 대해 문헌적 타당성을 갖는 모든 용어들의 해당 위치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치 형식과 동의어, 유사어를 망라하여 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색인을 이용하면 특정 주제의 여러 측면이나 관점을 한 곳에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분산된 관련 항목을 동일한 주제로 모아주는 상관

색인의 역할은 적합한 분류 번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해 KDC 4의 상관색인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명과 그 주제를 도치 형식으로 표현한 명사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열거식 색인이다. 도치항목은 항목 다음에 사선(/)을 그어서 예를 들면 국립도서관을 도서관/국립이나 국립도서관으로 026.1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학, 문학, 종교 등에서 공통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Δ 를 사용해서 소설 8 Δ 3, 언어사전 7 Δ 3과 같이 표시하고 양자택일할 수 있는 분류번호는 역사선(\)으로 도서관 건물을 찾으려면 022.1\613.1로 표시하였다. KDC 4의 서설에서는 이 상관색인이 본표에 나타난 각 항목을 가나다순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주제의 분류 위치를 곧 찾아내게 하는 구실을 하며, 항목의 관계성과 하위관계, 그리고 한 항목에 대하여 여러 입장에서 본 분류번호를 한 곳에 전부 표시해 주고 있으므로 분류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한번은 꼭 참조해야 할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KDC 4의 상관색인은 관련된 항목을 관계지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배열에 불가하므로 DDC 21의 상관색인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본표의 분류항목과 주의 설명어, 동의어, 유사어, 그리고 주요 항목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끝에 해당 분류번호를 제시해 주지만 동의어나 유사어, 상위어, 하위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또한 도치 항목을 만듦으로써 많은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조표에 나온 항목을 모두 제외시켰다는 점 또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표 5〉 KDC 4와 DDC 21의 상관색인 비교

| KDC 4 | | DDC 21 | |
|-----------|---------|--------------------------------------|-------------|
| 家族 | 3322 | Families | 306.85 |
| 家族/産業化 | 332.274 | applied psychology | 158.24 |
| 家族計劃 | 322.923 | government programs | 353.533 1 |
| 家族計劃(衛生學) | 517.245 | histories | 929.2 |
| 家族과 教育 | 370.13 | see <i>Manual at 929.2</i> | |
| 家族과 社會變動 | 332.27 | influence on crime | 364.253 |
| 家族構成 | 3322 | law | 346.015 |
| 家族機能 | 3322 | psychological influence | 155.924 |
| 家族問題 | 3322 | recreation | 790.191 |
| 家族法 | 365.541 | indoor | 793.019 1 |
| 家族社會學 | 3322 | outdoor | 796 |
| 家族生活 | 591.8 | religion | |
| 家族衛生 | 597.6 | guides to life | 291.61 |
| 家族의 範圍 | 365.543 | Christianity | 248.4 |
| 家族形態 | 3322 | see also <i>Family life-religion</i> | |
| | | pastoral theology | 291.61 |
| | | Christianity | 259.1 |
| | | social theology | 291.178 358 |
| | | Christianity | 261.835 85 |
| | | worship | 291.43 |
| | | Christianity | 249 |
| | | Judaism | 296.45 |
| | | social welfare | 362.82 |
| | | law | 344.032 82 |
| | | pubic administration | 353.533 1 |
| | | sociology | 306.85 |
| 計劃/家族 | 322.923 | Family histories | 929.2 |
| | | Family law | 346.015 |
| 教育/家族과 | 370.13 | | |
| | | Family life | 306.85 |
| 社會變動/家族과 | 332.27 | religion | 291.441 |
| | | Christianity | 248.4 |
| 産業化와 家族 | 332.274 | | |
| | | | |

있다. 물론 DDC 21의 보조표에 비해 KDC 4의 보조표 분량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분류표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접근점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표 5〉는 KDC 4의 색인과 DDC 21의 상관 색인 중에서 '가족'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DDC 21의 상관색인은 단순히 '가족'의 분류 번호만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져 본표 전반에 흩어져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 번호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가족'이 다루어지는 다양한 측면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DDC 21의 상관색인에서 '가족'이 크게 응용심리학, 정부 프로그램, 역사, 범죄의 영향, 법, 심리학적 영향, 레크리에이션, 종교, 사회복지, 사회학과 관련됨을 알 수 있고, 이들을 DDC 주류에 맞춰 보면,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 예술, 역사학에서 '가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개관할 수 있다. 또한 'Families' 아래에서 제시되어 있는 'histories'가 'Family histories'라는 별도의 색인 항목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Family law, Family life 아래의 religion 등도 그러한 예로 DDC 21은 상관 있는 색인 항목들을 함께 모아두는 것 이외에 하위 색인 항목들을 해당 알파벳순에 다시 한번 배열함으로써 분류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KDC 4의 상관색인은 '가족'에 해당하는 색인 항목을 별도로 모아놓지 않고 모든 항목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함으로써 '가족'으로 시작하는 색인 항목들이 함께 보이도록 하였다. 분류자는 색인을 통해 '가족'이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DC 4는 같은 단어로 시작하지 않은 색인 항목의 경우, 관련성이 깊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KDC는 도치 항목을 만들어 색인 항목에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였다. 위의 예처럼 '산업화와 가족'이라는 표목에 '산업화'와 '가족'이라는 색인어로 모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족/산업화'라는 도치 항목을 만든 것

이다. 그러나 모든 색인 항목의 도치 항목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명확한 도치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외에도 DDC 21의 상관색인에서는 보라 참조 및 도보라 참조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색인 항목과 분류번호 항목을 단일 배열하고 있는 KDC 상관색인의 편집 체제와는 달리 계층구조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인덴션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KDC 4의 상관색인을 보면 동일 형식 안에서의 언어구분 표시를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시적 기능이 감소되었으며 외국의 인명, 지명, 서명, 일반 명사 및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영어 부기를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상관색인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상관색인에서 해당어를 쉽게 찾고 본표에서의 위치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색인의 각 항목은 전부 일단식으로 편집되어 분류 번호의 계층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도치 형식보다는 DDC 21과 같이 인덴션을 이용한 계층적 구조의 표현으로 분류자가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KDC 4가 DDC 21과 같이 질적으로 우수한 상관색인을 갖기 위해서는 김자후(1998)도 지적했듯이 먼저 한국어로 된 수준 높은 통제어휘집이 개발되어야하므로 한국어 주제명 표목표나 시소러스, 전문용어집의 구축과 적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통제어휘집이 개발될 때까지 도치 표목을 없애고 편리하게 조치하여 DDC 21의 상관색인과 같이 변경하면 이용이 편리

〈표 6〉 KDC 4와 DDC 21의 보조표 기호 비교

| KDC 4 | DDC 21 |
|---------------------------------------------------|-------------------------------------------------------------------------------------------------|
| -091~-097 特殊 大陸, 國家, 地方區分 910-979와 같이 지역 구분한다. | -093-099 Treatment by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extraterrestrial worlds |

할 것이다.

2. 7 편집 체재

2. 7. 1 시각적 효과

DDC 21의 경우, 기호 칼럼의 분류 번호와 그에 대응하는 표목은 계층 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KDC 4에서도 활자체를 이용하여 구조상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유와 강에 해당하는 번호는 다른 번호에 비해 글자의 크기도 크고 굵은 글자체로 되어있다. 그러나 KDC 4의 목에 해당하는 번호부터는 글자 크기는 같고 목의 경우에만 굵은 글씨체로 되어있어 DDC 21에 비해 시각적으로 계층 표현이 부족하다.

DDC 21과 KDC 4의 표목은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계층구조로 인덴션을 사용한다. DDC 21의 경우는 들여 쓰기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편집되어있으나 KDC 4의 경우, 인덴션이 상위 개념보다 한 글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류표 모두 분류 번호 세자리 이후에 점(point)을 찍어 옮겨 적고 기억하는 것을 돕고 있지만 DDC 21에서는 소수점 이후의 세자리씩 한 칸씩 띄어 보여주는 데 비해 KDC 4에서는 소수점 이후의 번호는 다 붙여서 보여주고 있어 혼란스럽고 이용이

불편하다.

두 분류표의 오른쪽 페이지의 상단에는 그에 해당하는 표목이 나타나 있는데, DDC 21의 경우, 모든 면의 상단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분류 번호가 페이지의 양끝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지 않고도 쉽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비해 KDC 4는 전혀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본문을 일일이 훑어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보조표의 분류번호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지시하기 위해 분류 번호 앞에 특정 기호를 붙여 본표의 분류번호와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DDC 21은 〈표 6〉에서와 같이 ‘-’을 사용하여 보조표를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KDC 4는 ‘.’을 이용해 보조표를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범위의 분류 번호의 묶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DDC는 ‘.’을 사용하고 있는데 KDC 4는 ‘~’을 사용하며 DDC는 가장 앞의 번호에만 기호를 붙이는 반면 KDC는 끝 번호에도 보조표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KDC 4와 DDC 21에서 일반도서관에 해당하는 분류표의 항목이 있는 페이지를 뽑아본 것이다.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분류표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페이지 편집, 사용된 기호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두 분류표가 모두 류, 강, 목 및 그 외의 세구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글

<그림 1> KDC 4 본표의 일부(제1권, p. 71에서 부분 발췌)

| 文 獻 情 報 學 | |
|-----------|----------------------------------------------------------------------------------------------------------------------------------------------------------------------------------------------------------|
| 025.26 | 利用者 指導 및 案内 圖書館 利用法, 各種 標識, 利用子 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
| .4 | 利用 및 利用者 研究 |
| .9 | 圖書館 弘報活動 圖書館週間, 讀書週間, 新聞, 텔레비전, 라디오의 利用 등을 포함한다. |
| 026 | 一般 圖書館 General libraries 經營, 管理, 歷史, 報告書, 統計, 불리틴, 便覽, 回覽 등을 포함한다. 特定 圖書館에서의 特殊活動, 機能 및 特徵 등은 그 主題下에 분류한다. 例: 公共圖書館에서의 地圖取扱法 024.98; 大學圖書館의 收書 方法 024.2; 法律圖書館에서의 pamphlet 取扱 024.92 |
| .1 | 國立圖書館 |
| .3 | 公共圖書館 公立 및 私立[前 026.4]의 公共圖書館을 포함한다. |
| [.4] | 私立圖書館 026.3에 分類한다. |
| .5 | 兒童圖書館 |

자의 크기를 각기 다르게 하고 진하기 정도를 다르게 하였다. KDC 4의 글자 크기가 DDC 21보다 다양하긴 하지만 DDC 21과 비교했을 때, 한눈에 식별하기 어려운 까닭은 많은 한자의 사용으로 글자 크기의 변동이 눈에 잘 띄지 않고, DDC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진하게 표시하고 크기의 차이를 두어 분류 표목들과 많은 주기들의 구분을 쉽게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DDC 21은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 양측 상단에 해당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세자리의 분류번호를 보여주어 해당 번호를 찾는 분류자들을 편리하게 해 준 반면, KDC 4는 별도

의 분류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좌측면의 분류번호는 DDC 21과 같은 속도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도 우측면의 분류번호를 찾는 것은 DDC 21보다 불편하다.

셋째, 두 번째 이유로 인해 두 분류표는 각 페이지를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다. DDC는 앞의 세자리 번호가 페이지의 양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으므로 세자리의 번호를 제외한 소수점과 그 아래번호로 시작한다. 이와 달리 KDC는 모든 페이지의 첫 항목에 완전한 번호를 기록한 뒤, 그 다음부터 공통된 세자리 번호를 생략하고 있다.

〈그림 2〉 DDC 21 본표의 일부(vol. 2, p. 64에서 부분 발취)

| | | |
|-----|-------------------------------------|-----|
| 027 | <i>Dewey Decimal Classification</i> | 027 |
|-----|-------------------------------------|-----|

027 General libraries, archives, information centers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any or all topics in heading

In the subdivisions of this number, the term *libraries* is used as a short way of saying libraries, archives, information centers, media centers

Class here comprehensive works on libraries, on information centers,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devoted to special materials

For libraries, archives, information centers devoted to specific disciplines and subjects, see 026

See Manual at 027; also at 026-027

SUMMARY

| | |
|-------------|----------------------------------------------------------------------------------------|
| 027.001-009 | Standard subdivision |
| .01-.09 | Geographic treatment |
| .1 | Private and family libraries |
| .2 | Proprietary libraries |
| .3 | Rental libraries |
| .4 | Public libraries |
| .5 | Government libraries |
| .6 | Libraries for special groups and organizations |
| .7 |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
| .8 | School libraries |
| .001-.005 | Standard subdivisions |
| .006 | Organizations |
| [.006 8] | Management |
| | Do not use; class in 025.19 |
| .007-.008 | Standard subdivisions |
| .009 | Historical and persons treatment |
| | Do not use for geographic treatment; class in 027.01-027.09 |
| .01-.09 | *Geographic treatment |
| | Add to base number 027.0 notation 1-9 from Table 2, e. g., libraries in France 027.044 |

.1 *Private and family libraries

Collectionas not open to general use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either or both topics in heading

* Do not add notation 068 from Table 1; class in 025.19

넷째, DDC와 KDC는 모두 십진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분류번호가 세자리 이상 전개될 경우, 세 번째 번호 다음에 소수점을 찍고 있다. 소수점은 두 분류표에서 모두 한 번만 사용되는데 번호가 여섯 자리 이상 전개될 경우, DDC는 번호의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 3자리마다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KDC는 소수점 이하의 번호는 모두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DDC 4와 KDC 21에 사용되는 기호가 다양한데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호와 공통으로 있으나 사용이 다른 기호, 각각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각괄호와 마침표, 하이픈, 세미콜론은 두 분류표에서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기호로 []는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는 문장의 끝남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DDC 21의 경우에는 주기가 길게 나열될 경우에만 사용하고 단 하나의 주기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KDC 4는 모든 주기에 마침표를 붙이고 있다. ‘-’은 두 분류표에서 분류 번호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은 DDC 21에서 보라 참조 및 도보라 참조를 나열하는데 사용하고 KDC 4에서는 타소 분류 주기를 여러 개 나열하는데 사용한다. 원괄호는 DDC 21과 KDC 4에 모두 있으나 DDC 21에서 원괄호는 임의 규정 사항을 제시하거나 임의 규정 번호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는데 반해 KDC 4는 동의어 및 다른 표현을 나타내는데 원괄호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사용되는 기호 중 DDC 21에서만 사용되는 기호를 살펴보면 모두 표목의 앞에 표시되어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footnote로의 이동을 지시

하는 기호들이고, ‘>’는 중앙 저록임을 표시해 주는 기호이다. 중앙저록과 함께 DDC 21에서 표를 간소화해 주어 전반적인 구성을 단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본표 하단에 나와있는 ‘*’, ‘†’, ‘‡’과 같은 기호이다. 공통된 지시가 적용되는 항목들의 앞이와 같은 기호를 부가함으로써 똑같은 지시사항을 반복할 필요 없이 간략하게 표를 구성할 수 있다. KDC 4에서는 중앙저록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자후(1998)는 중앙저록 적용의 한 예로 중앙저록과 함께 기호조합 방식을 설명해 주면 982에서 987까지의 주기사항들을 생략할 수 있으며 분류표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방대한 학문 분야를 수록한 분류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간단한 표현으로 많은 내용을 내포하는 한 방향으로 중앙저록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KDC 4의 경우, 이와 같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일일이 반복적으로 같은 주기를 나열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KDC 4는 앞으로 현재보다 세분되고 조합방식이 다양화 될 것이므로 가능한 표를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KDC 4에만 사용되고 있는 기호로는 ‘→’와 ‘△’가 있는데 ‘→’는 화살표 좌측에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화살표 우측에 있는 번호에다가 분류할 것을 지시하는 기호이며, ‘△’는 상관색인에 사용하는 기호이다. 이상과 같이 최대한의 공간 절약과 시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기호의 사용, 숫자와 문자의 크기 조절, 들여쓰기와 여백 등, 분류표 상의

배치는 앞으로 실제 분류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7. 2 한자와 영어 부기

KDC 4는 조사나 슬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여 한글, 영어와 혼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한자문화권에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동음이의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고 한글만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 설정을 위해 한자의 사용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일반화되어 굳이 한자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한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을 우선 표기하고 의미 해석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오거나 애매한 단어들에 한해 한자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실용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로 인한 분류표의 분량이 늘어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한글 표기를 우선하고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많은 도서관이 동서는 KDC를 사용하면서도 양서는 DDC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영어로 해당 주제를 KDC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양서 분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이나 역사 이외에도 가급적 각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영어를 부기하는 것이 KDC 4의 활용성을 높여줄 것이다.

2. 7. 3 표기 및 오자

KDC 4의 경우 외국의 인명, 일반명사 및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은 대체로 1988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외래어표기법 개정안”을 따랐

는데 용어의 표기가 일관성이 없으며 DDC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많고, 지역구분에서 나라 이름의 표기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한국, 인도, 미국이 한자로 되어있는가 하면 독일, 영국 등은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명을 미국식 발음으로 기록하여 고유명사에서의 원음주의라는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있다. 에스파냐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미국식인 아르젠티안 아닌 아르헨티나라는 원음을 따랐다. 또한 KDC 4는 오자와 잘못된 분류번호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충분한 교정작업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792.97은 슬로바키어의 영어표기가 Siovak로 오기되어 있으며 745 문법의 주기에는 예로 영어품사론이 744.5로 되어 있으나 744.1이 올바른 분류번호이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분류표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된 표기와 보다 신중한 교정작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3. KDC 4와 DDC 21의 개정 과정

3. 1 개정 주기

DDC는 제 1판이 1876년에 나온 이래로 120년동안 20번의 개정이 이루어져 몇 번을 제외하고는 평균 7-8년을 주기로 새로운 판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비해 KDC는 제 1판이 1964년에 나오고 제 2판은 1966년, 제 3판은 1980년, 제 4판은 1996년에 발행되었다. 1966년에 나온 제 2판은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수정판

의 의미가 크므로 개정의 의미를 제 3판부터 부여한다면 분류표의 개정주기는 거의 16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DDC의 평균 개정 주기인 7-8년에 비하면 지나치게 길다. 그러므로 학문의 변화가 심해질수록 새로운 학문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표의 개정 주기는 더욱 짧아져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분류표의 개정 주기가 짧아지면 새로운 주제 항목의 설정이 용이해지고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분류표에 직접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담위원회의 구성과 정기적인 모임이 필수적이다. 1996년도에 발행된 DDC 21판의 준비가 1988년부터 심진분류법 편집정책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적 할애와 전문지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많은 조연자들의 자문과 협력으로 가능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2 개정 방침

DDC 21은 가장 혁신적인 개정판으로 350-354 행정학과 560-590 생명과학을 전면 개정하고 370 교육학은 포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004-006 컴퓨터 과학, 396 유태교, 368 보험은 부분적 개정을 하였다. 이렇게 그 동안 학문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분류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KDC 4는 개정 방침에 나타났듯이 류에서 목에 이르기까지는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기존 골격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개정 방침 아래 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고 부분적 개선과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큰 틀을 유지하려는 나머지 새로운 학문 발전의 세태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는데 제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무 담당자들과 주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열거식 분류표에 분석합성식 원리를 도입하여 분류표의 조합성을 높여 주제 검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3. 3 편찬위원회와 개정 관련 소식지

DDC는 Decimal Classification Editorial Policy Committee(EPC)가 있어서 DDC에 대한 강력한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는 물론 공공 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에 종사하는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EPC의 모든 결정은 주제 분야의 발전과 국제적인 필요성, 기술적 발전에 관심을 두며 결정한다. DDC의 편집활동은 LC에서 근무하는 분류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행되는데 이들은 현대적 시각에서 주제의 분화 및 발전, 통합, 그리고 분류표의 구조개선 등 개정당시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분류표의 개정 및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 조정하고 있다. DDC의 개정활동의 결과물은 계간지인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dditions, Notes and Decision(DC&)에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를 통해 DDC 사용자인 분류담당 사서들이 새롭게 개정된 최신의 내용을 알게 된다. DC&의 개정 및 전개는 EPC에 보고되고 계속적으로 분류표 개발 정책의 바탕이 되며 이러한 것이 모여져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KDC는 분류표의 개정과 편찬을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DDC와는 달리 위원들 대부분이 실무자들보다는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신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분류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KDC의 개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EPC와 유사하게 분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뿐만 아니라 분류 담당 사서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꾸준한 활동과 강력한 정책 결정 기구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최소한 4개 영역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헌정보학 교수진, 최소한 10개의 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전문가, 관중별 분류 담당 사서들, 색인전문가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DC&과 같은 뉴스레터지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정기적인 모임에서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분류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하에 분류분과위원회와 관련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이 KDC의 개정 주기를 줄이며 급변하는 정보 조직의 틀을 제대로 짤 수 있게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학문은 급속하게 변하고 정보사회를 넘어 지식사회로 가고 있다. 새로운 학문의 출현과 학제성, 전문화, 세분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학문 연구 결과물인 자료를 분류하는데 필요한 분류표 역시 계속해서 정기적으

로 개정되어야만 한다. KDC 4는 국내 유일의 표준분류표로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DDC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정 작업에 비해 분류표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학문 분야의 출현 및 기존 학문 분야의 변동 사항을 잘 수용하지 못하며 분류표의 애매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KDC 4를 DDC 21과 전반적인 구성 체계와 배열 체계, 보조표와 개요표, 주제의 표현, 상관색인, 편집 체재, 개정 관련 사항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KDC 4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KDC 4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KDC 4는 DDC 21에 비해 전체적인 구조와 조직의 설계에 있어서 치밀함이 덜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조적 장치가 미흡하다. 중앙저록, 단일단계 개요표, 다단계 개요표, 분류번호의 제시, 인쇄나 편집상의 아이디어 등에서 시작하여 보조표나 색인의 다양한 기능에 이르기까지 분류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KDC가 한국의 표준분류표로서 그 명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변동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혼돈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정판의 더 나은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주기 등을 통해 다각도에서 전판과의 관계를 알리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판과 개정판의 차이를 통해서 전에 사용한 번호의 변경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변경된 국가명까지도 다루고 있어 이

용에 편리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분류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정된 분류법에 대해 설명하는 매뉴얼을 분류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KDC 4는 『한국십진분류법해설』을 별도로 발간함으로써 분류표가 가지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책보다는 KDC와 함께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한국십진분류법해설』은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는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는 보다 실제적인 해설이 추가되어야 한다. KDC 4에서는 분류표를 사용할 때, 사용자들의 주관에 의해 제각기 다른 판단과 해석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많은 해설과 구체적인 자료의 예와 분류 번호의 전개를 보여주는 안내서, 본표와 보조표 곳곳의 다양한 주기와 지시사항의 보완, 분류표 내의 부록인 매뉴얼의 추가를 통해 분류자가 일관된 분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표목에 대한 정의, 범위, 포함관계를 ‘~ 등을 포함한다’ 아래에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주기를 보다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정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구분을 주지 않는 특수 규정이 있으므로 정의와 범위, 포함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개정 작업과 확인 작업을 통해 북한학, 지역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점, 소호, 인터넷 비즈니스, 홈뱅킹, 홈쇼핑, 경호학, 호텔 경영 등과 같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조되는 항목의 설정을 고려해야 하고 오자나 잘못된 분류번호는 모두 정정해야 한다.

넷째, 인물군에 관한 보조표와 지역구분표를 보다 상세히 만들어 해당 주제를 최대한 적합하게 분류번호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표준구분표와 중복되는 주제별 항목의 설정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분류 번호 부여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하나의 색인 항목에 대해서 관련 있는 학문 분야를 연관시켜 본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상관색인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분류표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대부분의 용어들과 동의어, 상위어, 관련어 및 본표와 보조표에 의해 표현되는 개념들에 대해 문헌적 타당성을 갖는 모든 용어들을 포함되어 있는 상관색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분류표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분류 담당 실무자들의 실제적인 의견과 해당 분야 주제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수렴해서 좀 더 실용적인 분류표로의 정기적인 개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학문분야를 반영하여 분류자들이 효율적으로 분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십진분류표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을 문헌정보학 교수진, 학문별 주제전문가, 분류 담당 사서, 색인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조정은 물론이고 개정관의 적용으로 인한 분류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직 분류 담당 사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도서관협회는 KDC의 이해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와 간략판의 출판에 비롯해 분류 담당 사서들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한다.

여덟째, 전자 버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 인쇄본도 완벽한 체계를

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이른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인쇄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 버전의 분류표는 보다 다양한 접근점의 제공을 바탕으로 전자환경 속에서 분류표의 활용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자후. 1998. KDC 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27: 369-389.

남태우. 1996. DDC 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85-104.

도태현. 1998. 열거식 계층분류체계에 분석합성식 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KDC를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29:241-272.

서울시 도서관연구회 정리분과위원회. 1997. 우리 나라 십진식분류법의 변천과정 고찰: KDC를 중심으로. 『도서관연구』 14: 39-60.

여지숙. 1998. 『DDC의 임의 규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동근. 1997. DDC 제 21판의 특성과 사용법. 『도서관문화』 38(3): 3-39.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1): 역사와 특성. 『도서관문화』 39(1): 54-74.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2): 일반적 성격과 구조. 『도서관문화』 39(2): 46-59.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3): 분류작업의 실제. 『도서관문화』 39(3): 35-47.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4): 제1보조표 표준세구분. 『도서관문화』 39(4): 31-42.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5): 지역구분표. 『도서관문화』 39(5): 49-59.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6): 문학형식구분표. 『도서관문화』 39(6):30-44.

_____. 1998. DDC의 새로운 이해(7): 언어공통구분표와 국어구분표,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 인물군 구분표. 『도서관문화』 40(1): 23-39.

_____, 여지숙. 1998.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29: 313-342.

윤희운. 1998. 『정보자료분류론』. 대구: 태일 출판사.

이숙주. 1999. 한국십진분류법 형식구분의 개정방안. 『정보자료의 조직』, 대구: 정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해성. 1998.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193-217

- _____. 1999. DDC의 패시구조에 대한 연구: 생명과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3): 1-44.
- 최달현, 이창수. 1998. 『정보자료의 분류』.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정태 외. 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ed. Albany, N.Y. : Forest Press.
- Chan, Lois Mai & et a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Albany, N. Y. : Forest Press.
- Melvil, Dewey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4 vols.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ne Beall, Winton D. Matthews, and Gregory R. New York: OCLC Forest Press.
- Mitchell, Joan S. 남태우 역, 1996. DDC에 있어서 옵션 사항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33(3):